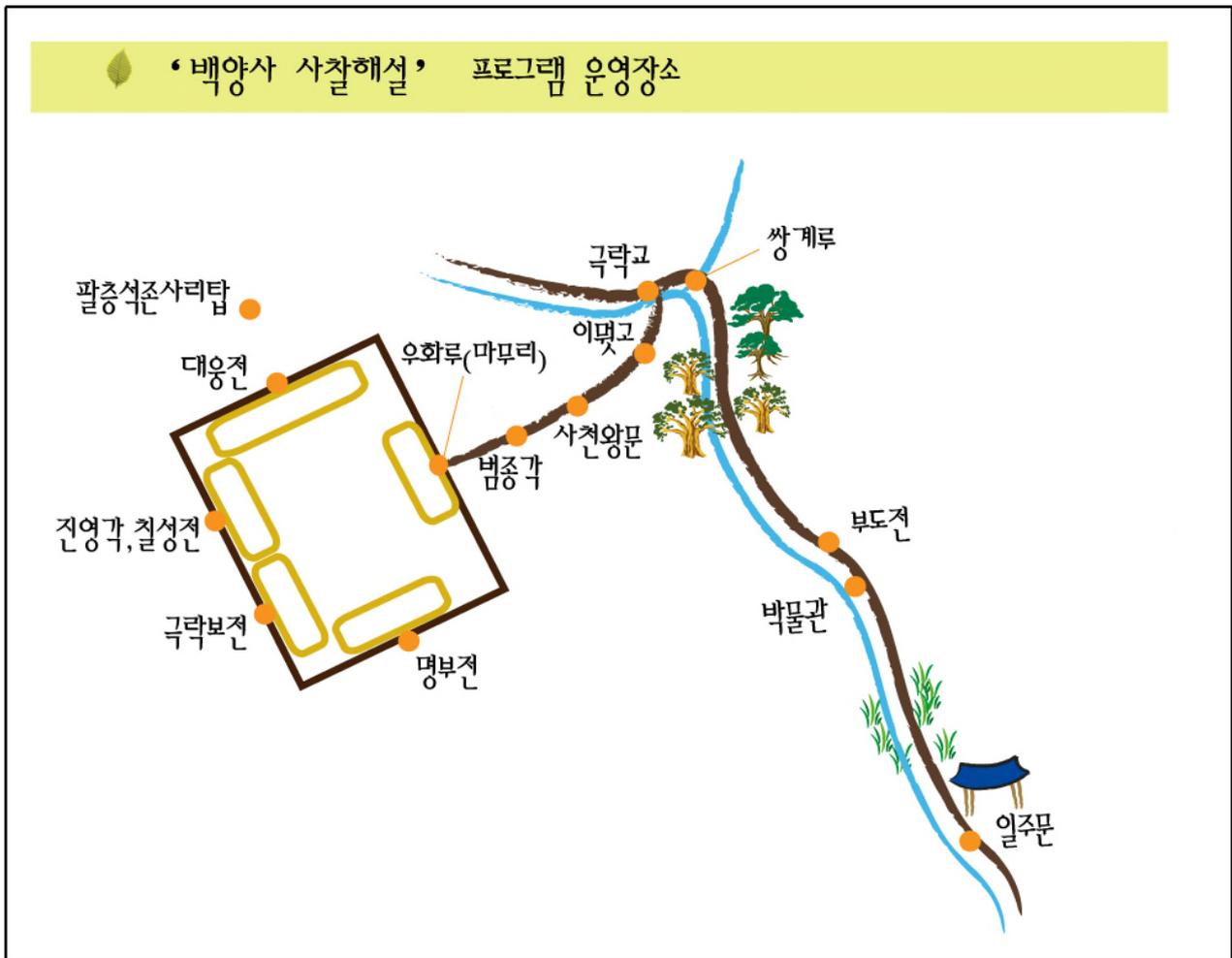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활동목표	국립공원의 자연과 역사문화가 숨쉬는 백양사의 유래를 알고,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역사의 흔적을 찾아본다.		
해설주제	천년고찰 고불총림 백양사의 유래와 문화재를 알아본다.		
해설재료	현장 및 사진자료	소요시간(')	90분(1시간3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준비물	이동시간 / 소요시간 (')
동기유발	1. 첫만남	국립공원 소개		
	2. 백양사 소개	백양사의 유래		
주제별 해설	3. 소요대사부도	백양사의 보물, 소요대사부도		
	4. 쌍계루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쌍계루		
	5. 극락교	극락교의 의미		
	6. 이뿔고	백양사의 중심사상, 이뿔고		
	7. 사천왕문	고불총림백양사를 지키는 사천왕		
	8. 범종각	하늘의 주악을 연주하는 불전사물		
	9. 팔층석탑	팔정도를 나타내는 팔층석탑		
	10. 대웅전	백양사 대웅전		
	11. 진영각, 칠성전	진영각과 칠성전의 의미와 괘불석주		
	12. 극락보전	극락정토의 세계 극락보전		
	13. 명부전	중생의 구도자 지장보살		
마무리	14. 마무리	소감나누기		

신청인 :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첫만남	국립공원 소개
1.첫만남	<p>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맑은 공기 가득한 숲에 오니 기분이 상쾌하시죠? 저는 오늘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를 해드릴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의 자연환경해설사 000 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참여유도/유대감형성)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나요?</p> <p>국립공원이란 훼손되지 않은 자연생태계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곳입니다. 또한 많은 소중한 문화자원이 있는 곳이 국립공원입니다. 이런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자연생태계와 문화자원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국립공원 해설을 함께 하시면서 관심 가져주시고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p> <p>오늘 여러분이 방문한 국립공원은 내장산국립공원으로 1971년 8번째로 지정되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전북 정읍과 순창지역의 내장산, 전남 장성지역의 백암산, 입암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여러분은 백암산 자락에 서 계십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2.백양사	백양사의 유래
-------	---------



2.백양사
유래

여러분~올라오시면서 커다란 아름드리나무들을 만나셨나요? 혹시 다람쥐를 보신 분 계시나요? (대답유도) 여러분이 걸어 올라온 길은 갈참나무 숲입니다. 이렇게 우람한 갈참나무들은 흔히 볼 수 없는 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갈참나무가 우람하게 서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생태적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자란 참나무는 목재 가치 때문에 베어지기 마련이지만 이곳 나무들은 백양사 입구에 있어서,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아름드리나무들이 숲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져 더욱 멋진 백양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양사는 백제 무왕 33년(632) 여환선사가 산 이름을 따서 '백암사'로 창건하였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고려시대 때 증연선사께서 중창을 하면서 정토사라 하였는데 고려시대 유행하였던 정토사상을 담

고 있습니다. 정토사상은 극락정토를 추구하는 말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세계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본받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들어 선조 때 정토사의 환양선사 이후 백양사로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백양사로 이름 붙은 데는 재미있는 설화가 전하고 있습니다. 환양선사가 정토사, 즉 지금의 백양사에서 법화경 설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구름떼처럼 몰려왔는데 3일째 되는 날부터 흰 양이 내려와 설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7일째 법회가 끝나는 날 환양선사의 꿈에 흰 양이 나타나 “나는 죄를 짓고 양으로 변했는데 스님의 설법을 듣고 개화되어 환생하여 천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하고 절을 하였답니다. 이튿날 설법하던 곳에 가보니 흰 양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후 부터 흰백白 양양羊자를 써서 백양사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양사는 본 절의 경내 외에 운문암, 금강암, 영천암, 약사암, 천진암 등 10여개의 암자가 있는데, 각기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상왕봉 아래 위치한 운문암은 예로부터 “북의 금강산 마하연 남의 백암산 운문암”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의 큰스님들이 수행을 위해 안거를 나는 유서 깊은 선원입니다. 약사암 위쪽에는 천연동굴이 영천굴이 있는데 이곳 역시 재미있는 설화가 깃든 약수가 흐르는데 다리 아픈 사람들이 먹으면 낫는다 하여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백양사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백양사가 조금 새로워 보이시나요? 지금부터 들으면서 보면 새로운 것이 가득한 백양사로 출발하겠습니다.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소요대사 부도	백양사의 보물, 소요대사 부도
3.소요대사 부도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 1;">  <p style="text-align: center;">소요대사탑</p> </div> <div style="flex: 2; padding-left: 10px;"> <p>잠깐 백양사의 보물을 만나고 가겠습니다. 실제 보물 제 1346호로 지정된 소요대사의 부도입니다. 여러분, 부도가 무엇일까요? (참여유도)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안치한 곳을 탑이라 한다면 스님들의 사리를 안치한 곳을 부도 또는 승탑이라 합니다. 보통 절에 가면 그곳에서 주석한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넣은 승탑을 모아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탑은 절의 중심이 되는 곳에 세운데 비해 승탑은 사찰 주변에 석비와 함께 건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양사의 많은 승탑 중에 소요대사탑은 건립연대가 확실하고 전체적으로는 범종의 모습을 띠었으나 중심에 화려하게 조각된 용과 하단부에 앙증맞게 조각된 꽃게 등 섬세하고 재미있는 표현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소요대사는 누구일까요? 소요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군을 이끌고 의병활동을 한 서산대사의 제자이며 사명대사의 사형이기도 하며, 조선시대 호남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p> </div> </div>

이 건물과 함께 조화롭게 있어 참 아름답죠?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앉아 뒤로는 백학봉의 기운을 받고 앞으로는 물결에 비친 세상을 보며 풍류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삼봉 정도전 같은 유학자들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국사시간에 배웠던 바에 의하면 고려시대 말 유학자들은 불교를 싫어했고 정몽주와 정도전은 조선의 건국과정에서 정치적 견해가 달라 죽음까지 불사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와서 글을 남겼을까요?

답은 저 나무에 있습니다. (각진국사의 이팝나무를 가리키며) 저기 저 나무는 이팝나무입니다. 저 나무는 각진국사가 이곳에 지팡이를 꽂아 두었는데 그 지팡이가 자라 저렇게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각진국사는 고려 말의 고승으로 백양사를 크게 중창하신 분입니다. 이름에 '국사'라고 되어있는데 국사란 나라의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각진국사는 고려 말의 명문가인 고성이씨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 백양사는 고성이씨 집안의 원찰이었고, 고려시대 고성이씨 집안의 학자이자 문하시중을 지낸 행촌 이암선생은 바로 각진국사의 동생이었답니다. 이암은 목은 이색의 스승으로 유학자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호남으로 유배와 있던 정도전에게 각진국사의 사촌동생 이었던 절의 주지 청수스님이 누각의 이름을 지어줄 것을 청하였는데, 이에 이름은 짓지 않고 '정토사교류기'를 지어 백양사의 역사를 전하였답니다. 후에 이색이 '쌍계루'라는 이름을 짓고 그 연유를 기록한 '쌍계루기'를 지었고 마지막으로 정몽주가 '쌍계루'라는 시를 지어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학에 있어 선구자이자 대학자들이 글을 남긴 곳이고, 특히 최고의 충신으로 추앙받던 정몽주 선생을 흠모하던 조선시대 많은 학자들이 그의 운을 따서 지은 '차운 쌍계루'시가 삼백여편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몽주의 쌍계루 시는 7언율시로 되어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를 써 달라 청하는 백암승을 만나니,
붓을 잡고 침음(沈吟)하면서 재주 없음 부끄럽구나.
청수가 누각 세워 이름이 이제 무겁고,
목옹(이색)이 기문을 지어 값 더욱 더하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이 붉고,
달빛이 배회하니 가을 물이 맑구나.
오랫동안 인간에서 시달렸는데,
어느 날 옷을 떨치고 자네와 함께 올라 볼까

서로 대립되는 사상과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곳에 글을
남긴 것은 쌍계루와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습니까? 단순하게 흑백논리로 나누어 생각할 것이 아닌
자연 속에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는 이 곳 쌍계루에서 여유로움을 느끼
보시고, 선조들처럼 시 한편 지어주실 분 계실가요? 너무 어려우면 시대
에 맞춰 삼행시로 지어볼까요?(참여유도)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극락교	극락교의 의미
5.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극락교</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극락교 밑 공하</p> </div> </div> <p>지금부터 우리는 다리를 건너갈 것입니다. 이 다리는 극락교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부처는 수미산의 정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미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를 넘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수미산으로 가는 상징의 의미로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 다리 밑 흐르는 물에 세속의 찌든 때를 씻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발밑에는 용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이 '공하'인 이 용(사진자료)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리기둥이나 다리 밑에 새겨두고, 나쁜 것들이 지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p> <p>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백양사 경내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느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절을 찾았지만 절은 종교시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은 많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니 경내에서는 정숙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6.이뿃고	고불총림 백양사의 중심사상, 이뿃고
6.	<div data-bbox="354 703 593 1120" data-label="Image"> </div> <p>이뿃고 비석</p> <p>여러분 여기 뿃라고 쓰여 있습니까? (참여유도) 네 여기 쓰여 있는 이뿃고란 뿃엇일까요? 표준어로 하자면 '이것은 뿃엇일까요?'겠쵸. 어떤 물건을 묻는데 쓰이는 말이 아니라, 불교에서 던지는 화두입니다. 화두란 참선수행을 위해 실마리를 던지는 말로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기 전 나는 누구였는가?'라는 생각을 위한 화두입니다. 조금 위쪽으로 보시면 '만암대종사고불총림도량' 한자로 적힌 글씨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오신 백양사의 정식이름은 고불총림백양사입니다. 총림이란 나무들이 숲을 이룬 것처럼 스님들이 뿃뿃하게 모여 수행하는 곳으로, 참선을 수행하는 선원,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 율법을 배우는 율원, 염불과 의식을 배우는 염불원 등의 수행기관을 갖춘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는 8개의 총림이 있는데요, 백양사는 이러한 총림운동을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대개 총림의 이름은 산이나 절의 이름을 따서 짓지만 이곳은 '고불'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고古 부처불佛의 고불은 일제 강점기 빼앗긴 옛 영토를 되찾고 쇠퇴한 불교를 일신하기 위해 결성하였던 호남고불회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앞에 보이는 비석은 근대의 큰 스님이셨던 만암대종사의 행적을 기리며, 만암대종사에서 서옹스님으로 이어진 백양사의 화두인 이뿃고를 전해주는 비석입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7.사천왕문	고불총림백양사를 지키는 사천왕
	 <p style="text-align: center;">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북방다문천왕 동방지국천왕 </p>
7.	<p>절마다 경내에 들어가기 위해 사천왕문을 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구에 사천왕문 현판이 있어야 하지만 백양사는 입구에 위치한 일주문부터 사천왕문까지 거리가 멀어 실질적인 입구인 사천왕문 앞에 절의 격의 나타내는 고불총림백양사 현판을 걸고, 문의 안쪽에 사천왕문 현판이 걸려있습니다. 이제 사천왕문 안으로 들어가서 사천왕이 누구인지 알아보까요? 본래 사천왕은 수미산에 사는 천신이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복하여 불법을 지키는 신장으로 거듭난 이들로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 마지막으로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각각의 얼굴색이 다 다른데요, 백양사의 사천왕은 전통 오방색에 따라 동서남북 방위에 맞춰 동-푸른색, 서-흰색, 남-붉은색, 북-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어 알아보기 쉽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8.범종루	하늘의 주악을 연주하는 불전사물
-------	-------------------

8.



- ↑ 범종
- ↖ 범고
- ← 운판
- ↙ 목어

이제 여러분은 수미산에 다다랐습니다. 힘들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는 의미로 하늘의 주악을 연주합니다. 바로 불전사물을 만나 볼 건데요, 보통 범종각, 범종루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느 절이나 범종을 갖추

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 불교의 4물을 다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물은 맨 우측부터 보시면 물고기 모양을 한 목어, 구름 모양을 한 운판, 가운데 법고, 아래쪽의 범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어는 물에서 사는 짐승들을 제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어가 변형되어서 뭐가됐을까요? 네 바로 목탁입니다.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고 있으므로 수행을 실천하는 자는 물고기 같이 자지 말고 도를 닦으라는 의미에서 절에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운판은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천도하고 날짐승을 제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고는 축생 중에서 땅위에 사는 짐승을 교화하기 위하여 친다고 합니다. 법고의 재료는 암소와 수소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이는 음, 양의 조화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종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소리입니다. 한국 범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 바로 이 음통입니다. 음판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소리 대롱입니다. 이 음통은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종에서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범종에서만 볼 수 있는 자랑이요 특징입니다.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9.팔층석탑	팔정도를 나타내는 팔층석탑
--------	----------------

9.



뒤쪽에 비석이 보이나요? 이 탑의 역사가 새겨진 탑비입니다. 비문에 의하면, 여기에 보관된 부처님의 사리는 일본의 흥법대사가 천축에서 가져온 석가모니의 사리로 백용성스님이 모시고 있다가 만암스님께 부탁하여 이곳에 봉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절과 달리 백양사의 탑은 대웅전 뒤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럼 잠깐 퀴즈를 내볼까요? 이 탑은 몇 층일까요? (참여유도) 네. 8층입니다. 탑을 셀 때는 지붕돌만 세는 것으로 돌이지만 자세히 보

면 끝부분이 목조건물의 처마처럼 지붕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탑의 독특한 점은 8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탑들은 3, 5, 7, 9 등 홀수로 만들어집니다. 탑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층의 평면은 사각이나 팔각 등 짝수로 만들고 층의 수는 홀수로 만들어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완전한 부처님의 공간을 표현합니다. 백양사의 탑이 짝수인 8층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팔정도'를 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팔정도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8개의 바른 길'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길은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사람의 모든 고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이 팔정도입니다.

그 팔정도의 첫 번째 방법이 지금 저 앞에 돌에 새겨진 '정견'입니다. 지금부터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돌에 새겨진 8정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팔정도를 살펴보면서 탑을 한 바퀴 돌았는데요, 탑이 곧 부처이기에 탑을 한 바퀴 도는 것은 부처님 앞에 절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10.대웅전	백양사 대웅전
--------	---------



10.

자, 여러분 이제 백양사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을 한번 보세요. 대웅은 한자로 큰 영웅을 뜻하는 것으로 불교에 있어서는 석가모니를 모시는 건물을 뜻합니다. 백양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를 가진 건물로 1919년 만암선사에 의해 지어져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웅전 지붕의 제일위에 가운데 한번 보세요. 특별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파란색 기와 하나가 있죠? 청기와는 궁궐 등 격이 높은 건물에 올리는 것으로 백양사에서도 대웅전 위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는 곳은 청와대도 같은 의미입니다.

백양사의 대표절경 중 하나로 바로 이 대웅전 앞에서 바라보는 학바위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대웅전과 학바위가 만들어내는 절경에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웅전 현판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 현판은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명필인 원교 이광사 선생의 글씨를 집자하여 만든 것입니다.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1.진영각, 칠성전 진영각과 칠성전의 의미와 괘불석주



↑ 백양사 괘불석주
← 괘불탱화와 법회모습

11.

여기서 잠깐,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요?(대답유도)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입니다. 불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여러 토착신앙을 흡수하였는데, 절에 가면 만날 수 있는 토착신앙의 신을 모신 칠성각, 신선각, 독성각 그리고 세분을 함께 모신 삼성각이 그 모습입니다. 칠성은 보통 무병장수를 기원할 때 찾게 되는데 보통 칠성각이라 부르는데 백양사는 격을 높여서 칠성전이라 부릅니다. 같은 건물에 연이어 백양사에 주석하신 역대 고승들의 영정사진을 모셔놓은 진영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각과 칠성전 앞에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괘불석주라 불립니다. 괘불석주는 무엇에 쓰이는 물건일까요? 네 큰 법회나 행사가 있을 때 괘불을 야외에 걸 수 있도록 만든 석조물입니다.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12.극락보전	극락정토의 세계, 극락보전
---------	----------------



극락보전



아미타불

12.

여러분 혹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불에 귀의한다는 것으로 일반 사람들도 나무아미타불을 외면 누구나 다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락보전에는 어떤 부처님이 계실까요? 바로 아미타불이 계십니다. 극락보전은 무량수전, 보광명전, 아미타전이라고도 하는데 한국 불교에서는 대웅전, 대적광전과 함께 3대 불전으로 꼽힐 만큼 중요합니다. 극락정토란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냐에 따라서 극락정토와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백양사 극락보전은 백양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기록에 의하면 조선 중종의 비인 문정왕후가 불사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의 극락보전은 선조 7년(1574)에 4번째 다시 지은 것입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인 극락보전은 다포양식의 겹처마, 맞배지붕의 건물로 비교적 고건축양식의 원형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귀중하고 가치 있는 건물로 평가되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3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13.명부전	중생의 구도자 지장보살
--------	--------------



명부전



지장보살

절에 가면 어느 곳에서나 한편에 꼭 있는 전각이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 명부전입니다. 보살의 이름을 따 지장전, 열 분의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시왕전이라고도 합니다.

13.

보통 절의 전각에는 부처를 주불로 모시는데, 명부전은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십니다. 그렇다면 명부전에 모셔져 있는 지장보살은 어떤 분일까요? 지장보살은 부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미래의 시간이 다할 때까지 죄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깨달음을 얻게 하고,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기도드릴 것입니다.”라고 말하시며,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추위에 떨던 중생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부끄러운 몸을 땅 속에 숨기셨던 보살입니다. 그래서 ‘땅(地)’에 ‘감출 장(藏)’을 써서 지장보살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은 중생을 죄로부터 구제하는 보살입니다.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백양사에 숨겨진 보물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4.마무리	소감나누기
14.	<p>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저기 현판에 새겨진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참여유도) 네, 우화루(雨花樓)입니다. 비 ‘우’자에 꽃 ‘화’, 다락 ‘루’자를 써서 그대로 풀이하면 ‘꽃비가 내리는 다락’입니다. 우화란 부처의 설법을 상징합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설법할 때, 하늘에서 천년에 한번 핀다는 만다라화 등의 꽃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고 천인(天人)이 풍악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불교에서 설법을 하는 건물에 우화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p> <p>오늘 저와 함께 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다 기억 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건물 하나에도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고불총림 백양사의 이름 뜻 기억해주시고, 자연과 역사문화자원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p>